

한국전쟁과 마을

- 기존 연구의 정리와 향후 연구의 과제 -

박찬승

目 次

- | | |
|----------------------|---------------------|
| 1. 프롤로그 | 3. 마을지도자 · 국가권력과 전쟁 |
| 2. 전쟁과 마을 주민간의 갈등 구조 | 4. 전쟁 이후의 마을 |
| | 5. 에필로그 - 연구방법론의 문제 |

【 초 록 】

한국전쟁은 내전적 성격을 갖는 전쟁이었다. 특히 인민군이 점령했던 남한 지역에서는 우익과 좌익으로 나뉜 민간인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은 그동안 이 문제를 농촌 마을 차원에서 다룬 논문들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쟁기 각 농촌마을에서 빚어진 좌우층들의 사례를 보면, 그러한 충돌이 일어난 배경에는 크게 3가지 갈등이 있었다. 첫째는 마을 내부의 서로 다른 신분간의 갈등, 계급간의 갈등이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는 19세기 말에 제도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여기서 빚어진 양반계층과 평민 혹은 천민 계층 간의 갈등은 한국전쟁의 와중에 폭발하였다. 지주와 소작인 · 머슴 간의 계급 갈등 또한 중요한 충돌 요인이 되었다. 물론 일부 지주들은 오히려 소작인들에 의해 보호를 받기도 했지만, 인민군과 지방 좌익들은 소작인들과 머슴들에게 계급의식을 불어

필자 : 한양대 사학과 교수.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AM2007).

넣고, 소작인들과 머슴들로 하여금 지주에 대하여 싸우도록 부추겼다.

둘째는 친족간의 갈등, 마을간의 갈등이었다. 즉 동족마을 내부에서의 친족 내부의 계과 사이에 빚어진 갈등이 폭발한 경우들이 있었고, 또 신분·계급·성씨 등을 달리하는 마을간의 오랜 세월에 걸친 갈등이 폭발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친족간의 갈등은 그리 심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친족들끼리는 서로 보호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서로 경쟁관계에 있던 친족이나 서로 다른 성씨들은 평소의 원한을 전쟁기에 폭발시켜 보복에 나서기도 했다.

셋째는 기독교도와 공산주의자들 간의 갈등이었다. 인민군과 토착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도들을 아편이라 생각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으며, 기독교도들 가운데 해방 이후 우익 단체에 참여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협한 세력으로 간주하였고, 이것이 학살로 이어졌다.

한편 한국전쟁기 마을에서 빚어진 충돌에는 마을의 지식층, 지주와 같은 지도자들의 영향력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것은 농촌 마을 주민들의 문맹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남북한의 국가권력이 깊숙하게 개입하여 갈등을 부추겨서 서로간의 충돌로 유도하기도 하였다. 남북의 국가권력은 아직 자기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느 한 쪽을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강요함으로써 스스로의 기반을 강화하려 하였다.

주제어 : 한국전쟁, 학살, 마을, 우익, 좌익, 기독교, 지식인, 지주

1. 프롤로그

최근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러시아에서 구 소련의 문서가 공개됨에 따라 한국전쟁의 국제전적 성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런가 하면 1990년대 이후 한국전쟁의 내전적 성격에 대한 연구도 역

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내전적 측면에서의 한국전쟁의 연구는 특히 전쟁기에 농촌마을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미시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에는 인류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마을과 관련된 사례 연구는 약 20편 정도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¹⁾ 이와 같은 연구는 대부분 구술증언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증언을 해줄 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그리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일단 그동안의 연구를 정리해보고, 앞으로 어떤 점에 특히 주목하여 연구를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겨진다.

이 글은 한국전쟁기 농촌마을에서 진행된 학살 가운데에서도 군의 작전(주로 빨치산 토벌)과 관련하여 진행된 학살 사건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 간의 좌우 대립으로 인해 빚어진 학살 사건을 주로 다룬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²⁾ 물론 마을 주민들 간의 좌우 대립과 그로 인한 학살 사건에도 남북의 국가 권력기관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마을 자체 내에도 비극을 가져온 이유들이 있었다. 그

-
- 1) 이들 사례 연구는 지역적으로 주로 호남과 충청지역의 마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영남지역에서의 사례 연구는 보도연맹이나 거창사건과 같은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영남지역에서는 인민군에 의해 점령된 지역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대부분 인민군에 점령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사례 연구도 서둘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한국전쟁기 남한에서 빚어진 민간인 학살은 크게 1)전쟁 초기 국군의 후퇴와 함께 있었던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과 형무소 수감자 학살사건, 2)미군의 참전 후 전선에서 있었던 미군의 민간인 학살사건, 3) 인민군 점령 이후 있었던 보도연맹원 학살사건과 인민재판 후 학살사건, 4) 인천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있었던 우익인사 학살사건, 5) 9.28수복 후 부역자 및 좌익혐의자 학살사건, 6) 전선의 교착상태 이후 빨치산 소탕과 관련한 군 작전 시 빚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등이 있다. 김동춘은 이를 다시 작전으로서의 학살, 처형으로서의 학살, 보복으로서의 학살로 구분하였다(김동춘, 2000, 『전쟁과 사회』, 돌베개, 211~233쪽 참조).

간의 사례 연구들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농촌 마을 주민들이 왜 좌우로 나뉘어 서로 갈등을 빚고 마침내 충돌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추적해왔다. 이 글은 그동안의 사례 연구들을 토대로 한국전쟁기 마을 주민들이 충돌한 배경을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농촌마을은 우선 크게 동성마을(동족마을)과 각성마을로 구분된다. 동성마을은 같은 성씨의 친족들이 오랜 세월 동안 거주해온 마을로서 내부 결속력이 그만큼 강했다. 반면에 각성 마을은 여러 성씨들이 함께 모여 사는 마을로서 내부 결속력은 그리 강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성마을은 다시 양반 성씨 마을과 평민 성씨 마을로 나뉜다. 양반 동성마을 가운데 특히 유력한 마을은 인근에 경쟁대상이 없는 경우 일정한 지역 내에서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슷한 세력의 동성마을이 인근에 있는 경우, 이들 마을은 서로 협력과 경쟁 관계에 서기 마련이었다.

한편 각성마을은 대부분 평민들의 마을이었다. 이들 각성 마을은 인근의 양반 마을에 항상 눌러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그런가 하면 근대 이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일부 마을은 천주교 혹은 개신교 신도의 마을로 변하기도 했다. 그러한 마을은 대부분 평민마을이었다. 평민 마을의 경우에도 그 마을을 주도하는 몇몇 성씨들이 있게 마련이었다. 그럴 경우 이들 성씨들 간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 농촌 마을에서는 조선시대 이래 지주와 소작농민, 호외집(협호)이라 불리는 예속농민, 머슴, 노비 등 다양한 계층이 섞여 살았다. 특히 양반 동성 마을의 경우 오히려 다양한 신분과 계층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고, 이들 신분·계층 간에는 일정한 지배-피지배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은 농촌 마을 내외의 협력과 경쟁,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어쩔 수 없이 갈등과 충돌을 낳았다. 물론 안정된 시대에는 협력과 경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운영기제로 작동하여, 마을 내부의 갈등 구조는 은폐될 수 있었다. 하지만 격변의 시대에는 갈등이 폭발하게 되고, 결국은 '충돌'로 이어졌다. 한국전쟁기 각 마을 안팎에서 빚어진 충돌이 바로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충돌'을 야기한 '갈등구조'는 도식적으로 설명되기는 어렵다. 각 마을마다, 각 마을 간에 다양한 사정이 있었고, 그러한 각각의 사정들이 갈등 구조에 녹아 있어, 전혀 다른 양상의 충돌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분간·계층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고, 집안간·마을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으며, 종교-이념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이제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갈등의 구조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편 한국전쟁기 나타나는 마을 간 혹은 마을 내 갈등에는 키(key)를 쥐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있었다. 그들은 친족의 지도자인 경우도 있었고, 마을의 지식인인 경우도 있었고, 지주와 같은 부자들인 경우도 있었다. 이들 지도급 인물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행사한 영향력은 오늘날 날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였다. 이 글에서는 그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왜 그와 같은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했는지 생각해보기로 한다.

또 한국전쟁기 마을 안팎에서 빚어진 학살에는 대부분 남북의 국가 권력이 개입되어 있었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남쪽의 국가권력은 경찰, 우익청년단 등으로, 북쪽의 국가권력은 인민위, 각종 연맹, 치안대 등으로 마을 내부에 권력을 침투시켰다. 이로 인해 마을은 좌우로 갈리어 서로를 적으로 지목하였다. 사실 마을 내부의 갈등이 '학살'로까지 이어진 데에는 이러한 단체들을 통한 국가권력의 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가권력이 구체적으로 마을에 어떻게 침투하고, 작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민군이 남한의 점령지역에서 철수한 뒤, 각 마을에는 아마도 유사 이래 처음이라 할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많은 이들이 마을을 떠나 산으로 들어갔고, 또 체포되어 감옥에 갔다. 그리고 일부 마을에서는 부역자나 그들의 가족들에게 추방령을 내렸다. 과거의 마을 공동체는 해체된 것이다. 하지만 마을에는 새로운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마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근 마을과의 권력 관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마을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전쟁과 마을 주민간의 갈등 구조

1) 신분·계급간의 갈등

조선왕조 사회를 지배해온 가장 중요한 기제는 '신분제'였다. 양반·상민·천민으로 구성된 신분제는 '법제적 신분제' 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신분제'였다. 따라서 신분제는 조선 사회를 규정해온 가장 강력한 프레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개화와 정부가 신분제의 법적인 폐지를 선언하였지만, 관습적인 규범과 같은 '사회적 신분제'는 하루아침에 신분제가 무너질 리가 만무하였다.³⁾ 1894년 이후 노비의 매매, 상속 등은 사라졌지만, 노비의 해방은 서서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노비들은 주인으로부터 해방된다 해도 갈 곳이 없었

3) 지승중, 2000, 「갑오개혁 이후 양반신분의 동향」『근대사회변동과 양반』, 아세아문화사, 13~14쪽.

기 때문에 여전히 주인 주변에 머무르면서 그의 가예, 종속적 소작인, 머슴, 산직 등 주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⁴⁾ 또 일부 노비들은 주인으로부터 벗어나 ‘마을 머슴’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일부 노비들은 도망을 하여 다른 마을로 가서 머슴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1910년대 성씨를 새로 만들어 호적에 올리기도 했지만, 마을 내 주민들은 모두 그들의 출자(出自)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차별 대우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없었다.

양반과 평민의 관계도 그러하였다. 일제시대 내내 농촌 사회에는 신분제의 유제가 살아 남아 있었다. 신분제의 유제를 강력히 지탱한 것은 지주-소작제라는 토지소유관계였다. 평민 소작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양반 지주에 예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양반과 평민 간의 신분제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⁵⁾ 하지만 농촌사회에서도 신분제의 강고한 틀은 서서히 깨져가고 있었다. 3·1운동 이후 보통학교가 1면 1교, 더 나아가서는 3면 1교 식으로 서서히 증설되면서 농촌 마을의 평민들도 자신의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 신교육을 받은 젊은 층은 점차 신분의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장년층 이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신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신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성년이 되고, 그들이 마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이후였다.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 중반까지 평민층과 양반층은 신분 문제로 잦은 충돌을 벌였고, 양반들은 ‘의식공황상태’에 빠졌다고 당시 신문들은 보도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양반들이 ‘자위단’을 조직하여 평민층에 대응하기도 하였다.⁶⁾ 신분제의 균열이 시작

4) 김필동, 2003, 「한말~일제하까지 촌락의 신분관계의 변화」 『한국사회사연구』(화양신용대학교수정년기념논총1), 160~163쪽.

5) 정진상, 2000, 「해방 직후 사회신분제 유제의 해체」 『근대사회변동과 양반』, 아세아문화사, 197쪽.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주역은 1920, 30년대 신교육을 통해 신분의식으로부터 벗어난 이들이었다.

해방을 전후하여 신분의식은 보다 큰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인민군의 진주는 신분제 하에서 억눌리면서 갖은 핍박과 설움을 당해오던 이들에게는 이를 전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로 받아들여졌다. 평민층과 천민층 가운데 원한을 품고 있던 이들은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고 보고 양반층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부여의 반촌과 민촌의 충돌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⁷⁾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여의 한 평민 동성마을(A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이웃한 양반 동성마을(B마을)로부터 핍박과 설움을 당해왔다. 그리고 양반 동성마을은 해방 이후 우익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반면, 평민 동성마을은 식민지시기부터 사회주의 운동을 해왔고, 해방 이후에도 좌익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평민 동성마을의 좌익 활동가들은 이웃한 양반 동성마을의 우익 활동가와 경찰에게 쫓기게 되었고, 결국 주요 인물들은 마을을 떠나 피신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A마을 가운데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던 이들 4명이 낙화암으로 끌려가 처형되었다. 그 뒤 인민군이 들어오자 이들의 유가족은 B마을의 이장과 우익청년단 관계자를 인민재판에 부쳐 처형하였다. A마을의 사람들은 이 마을이 속한 면의 면당 위원장, 치안대장 등을 맡았다. 하지만 그해 9월 말 인민군이 물러간 뒤 A마을의 성인들은 경찰과 B마을 주민들에 의해 모두 체포되어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리고 B마을 사람들을 처형한 사건과 관련하여 10여 명

6) 『조선중앙일보』 1934. 4. 20; 『중외일보』 1927. 7. 22, 1928. 2. 24.

7) 박찬승, 2006, 「종족마을간의 신분갈등과 한국전쟁 - 부여군 두 마을의 사례 -」 『사회와 역사』 69.

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결국 6명이 처형되거나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또 면당 위원장, 치안대장을 지낸 이들도 모두 체포되어 재판 없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 B마을 주민들은 A마을에 몰려 와 값나갈만한 물건들은 약탈해갔다. 전쟁을 거치면서 두 마을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처럼 한국전쟁기 A마을과 B마을 간의 충돌은 과거의 이른바 민촌과 반촌간의 오랜 신분 갈등이 전쟁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었다. 이는 ‘내전으로서의 한국전쟁’이 한편에서 옛 신분간의 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한국전쟁기에 민촌의 평민들이 반촌의 양반들에게 도전한 사례는 전남 영암의 G마을 사례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반촌이었던 G마을 옆에는 민촌들이 있었는데, 이들 민촌 사람들은 평소 자신들을 하대해 오던 G마을의 양반들이 조직한 대동계의 상징인 회사정 건물을 불태웠다.⁸⁾

하지만 같은 영암의 Y마을과 같은 양반마을의 경우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 G마을은 좌파와 우파로 갈리었던 반면 Y마을은 전체가 좌파 쪽으로 기울었고, 이러한 마을은 이웃한 민촌과 전혀 충돌이 없었다. 따라서 전쟁기 반촌과 민촌간의 관계는 반촌의 동향, 그리고 반촌의 힘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전쟁기 신분간의 갈등은 마을 내부에서 양반층과, 전에 천민 신분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머슴·고직·산직이나 백정·무당 간의 갈등으로 더 많이 표출되었다. 머슴들 가운데에는 평민뿐만 아니라 노비출신들도 상당수 있었다. 주인으로부터 이미 독립하여 마을머슴처럼 고농(雇農)으로 생활하고 있던 이들 가운데에는 과거 주인의 자신

8) 정근식, 2002, 「한국전쟁 경험과 공동체적 기억」 『지방사와 지방문화』 5-2, 186쪽.

에 대한 멸시와 차별에 대해 보복하려 한 경우들이 있었다. 하지만 머슴들의 경우에도 마을 부자들에게 모두 반항하여 인민군에 협조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노비출신 머슴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주인에게 충직한 경우도 많았다.⁹⁾

무당도 인민군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계층 중의 하나였다. 무당은 신분상으로 천민에 속하여 양반뿐만 아니라 평민층으로부터도 천대를 받아온 존재였다. 인민군은 이들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진도의 한 동족마을에서는 무당이 인민군에 적극 협조했다가 경찰이 들어온 뒤 온 가족이 몰살되었다고 한다.¹⁰⁾ 또 한 기독교 마을에서는 교회가 들어오면서 무당의 일감이 줄어들자 기독교들에 반감을 가진 무당과 그의 남편이 인민군에 적극 협력하기도 하였다.¹¹⁾ -

전쟁기에 발생한 충돌에는 지주와 소작인간, 또는 부농과 빈농간의 계급 갈등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식민지하에서 소작인과 소작지의 비중은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지주와 소작인, 지주의 대리인인 마름과 소작인 사이에는 항상적으로 갈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당진 합덕의 사례 연구는, 소작인들이 많았던 Y마을의 주민들이 이웃한 S마을의 재지주를 습격한 사건을 보여준다. 재지주는 이들을 자신의 마을에 거주하는 소작인들을 동원하여 막으려 했다. 습격한 마을의 주민들 가운데에는 소작인과 머슴 등이 섞여 있었다. 이들은 사회주의자의 영향을 받고 계급의식으로 무장되어 지주계급을 습격하려 한 것이다. 반면에 S마을에 지주와 함께 살고 있던 소작인들은 지주의 영

9) 윤형숙, 2003, 「전쟁과 농촌사회구조의 변화」『전쟁과 사람들』, 한울아카데미, 89쪽.

10) 박찬승, 2000, 「한국전쟁과 진도 동족마을 세동리의 비극」『역사와 현실』 39, 296쪽.

11) 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역사학전공, 2003, 『한국전쟁기 전남지방 민간인 희생에 관한 재조명』, 100쪽.

향 하에 여전히 놓여 있었고, 이들은 지주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마을의 소작인·머슴들과 싸웠다. 결국 습격은 실패로 돌아갔고, 9·28 이후 Y마을의 소작인과 머슴들은 곤욕을 치렀다.¹²⁾

머슴들과 그들을 부린 지주·부농 간의 갈등도 무시할 수 없었다. 머슴 가운데에는 평민신분으로서 경제적으로 몰락한 이들이 가장 많았지만, 양반 가운데 몰락하여 머슴이 된 경우도 있고, 노비 가운데 주인을 떠나 머슴이 된 경우도 있었다.¹³⁾ 인민군 치하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한 이들은 머슴 계층이었다. 머슴들이 인민군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은 인민군이 토지개혁을 발표하면서 머슴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1950년 봄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농지개혁의 계획에는 소작농에게 땅을 분배한다는 조항은 있었지만, 머슴들에게 땅을 분배한다는 조항은 없었다. 따라서 머슴들은 인민군이 내려와 자신들에게도 땅을 분배하겠다고 했을 때, 적극적인 충성을 보이게 된 것이다. 당시 인민군은 지주의 땅은 소작농들이 이미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작농의 토지 일부를 몰수하여 머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자작농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한다.¹⁴⁾ 인민군 치하에서 토지개혁의 실무를 담당했던 것은 각 마을에 구성된 농촌위원회였는데, 이에 는 소작농과 머슴들이 적극 참여하였다고 한다.¹⁵⁾

구례 광의면 면소재지인 E리의 사례 연구를 보면, 한국전쟁기 좌익 쪽에 가담한 이들은 소농, 빈농, 머슴, 백정, 목수 등 가난한 이들이었다. 반면에 우익 청년단에 참여한 이들은 상업이나 전문직 종사자, 그

12) 박찬승, 2007, 앞의 글, 161~164쪽.

13) 머슴에 대해서는 김필동, 앞의 글과 정진상, 2000, 「해방 직후 사회신분제 유제의 해체」 『근대사회변동과 양반』, 아세아문화사, 195~196쪽 참조.

14) 국사편찬위원회, 1994, 『북한관계사료집』19, 272쪽.

15) 박찬승, 2007, 「한국전쟁기 합덕면 마을 주민간의 갈등」 『사회와 역사』74, 162쪽.

리고 부농층에 해당하는 이들이었다. 따라서 이 마을에서는 계급간의 갈등이 한국전쟁기에 표출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⁶⁾

그런가 하면 합덕의 한 마을처럼 지주의 영향력 하에 묶여 있던 소작인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함평의 한 동족마을 사례 연구를 보면, 부자 친척의 땅을 부치고 있던 소작인들은 여전히 친척 지주의 영향력 하에 머물러 있었다.¹⁷⁾ 이처럼 전쟁 중에 소작인들의 행태는 다양하였고, 이는 지주와 소작인 간의 평소의 관계에 좌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친족·마을간의 갈등

전쟁기에는 친족 간, 친족 내부의 갈등이나 마을 간, 마을 내부의 갈등과 충돌 사례도 상당히 많았다. 친족 내부에서의 갈등과 충돌 사례는 진도의 한 마을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잘 나타난다. 동족마을인 이 마을에서는 한국전쟁기 인민군과 좌익측에 의해 희생된 이가 110명, 입산한 이들이 37명, 입산자 가족으로 경찰과 우익에 의해 희생된 이가 20명 등, 모두 167명이 희생되었다. 그런데 당시 같은 친족 안에서 중파에는 좌익으로 간 이들이 많았고, 계파에는 우익으로 간 이들이 많았다. 경제적으로는 중파가 더 부유했지만 중파의 핵심인물이 사회주의자로서 좌익으로 가는 바람에 중파의 젊은 청년들 가운데 좌익으로 간 이들이 많았다. 반면에 계파는 그 안에 핵심 인물이 해방 후 경찰에 들어가는 바람에 우익으로 간 이들이 많았다. 그리고 1946년경부터 1950년까지 좌파 청년들은 핵심인물이 마을을 떠난 뒤에 중심을 잃고 우파

16) 최정기, 2008, 「한국전쟁 전후 연파리의 사회적 갈등과 체노사이드 - 지리산 아래 먼 소재지에서의 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 『전쟁과 재현』, 한울아카데미, 98~99쪽.

17) 윤형숙, 앞의 글, 88쪽.

청년들에게 놀리어 여러 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갈등 관계는 한국전쟁초기에 경찰이 이 마을의 5명의 보도연맹원을 학살하고 떠난 뒤 폭발하였다. 보도연맹원의 유가족들은 인민군들을 앞세워 우파 쪽에 보복을 시작하였다.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인민군이 철수하던 9월말~10월초에 우파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이 자행되었다. 그리고 경찰이 들어온 뒤에 이번에는 우파의 좌파에 대한 보복이 있었다. 이리하여 한 마을에서, 그것도 같은 동족마을 안에서 167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빚어졌다. 물론 중파나 계파에 속한 이들이 모두 좌, 우 어느 한쪽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친족 내부의 이와 같은 충돌은 흔한 사례는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의 농촌 사회에서 친족 내부의 경쟁과 갈등은 항상 있어왔다. 이 마을에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집안 어른'이 없는 상태에서 평소의 이런 저런 갈등이 해방 이후 좌우익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그것이 전쟁기에는 살육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¹⁸⁾

하지만 한 집안 내부에서의 갈등이 이처럼 커다란 충돌로 이어진 것은 오히려 드문 일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함평의 한 동족마을에서는 큰 집과 작은 집이 좌익과 우익으로 갈리었지만, 서로를 해코지하거나 죽이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수백 년 간 자작일촌으로 살아오면서 한 집안이라는 의식, 즉 일가의식이 강하였던 것이다. 윤형숙은 이를 '일가주의'라고 칭하였다. 남북에 각각 국가가 들어섰지만 국가관이나 국민의식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관이나 이념보다는 '일가주의'가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본 것이다.¹⁹⁾

그렇다면 진도의 사례와 함평의 사례는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 것일까. 양쪽 모두 오랜 세월 동안 자작일촌을 이루어온 양반 동족마을이

18) 박찬승, 2000, 앞의 글.

19) 윤형숙, 앞의 글, 96쪽.

었는데, 왜 한쪽은 서로 갈리어 그야말로 ‘골육상쟁’을 한 반면, 다른 쪽은 서로를 돌보게 되었던 것일까. 함평의 경우에는 좌우를 이끈 큰 집과 작은 집은 형제로서 모두 부자였다. 따라서 형제 사이에는 큰 갈등이 없었고, 좌우의 사이에도 큰 갈등이 없었다. 반면에 진도의 경우에는 좌우를 이끈 사람들이 중과와 계과로 상당히 먼 친척이었으며, 경제력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동족마을 구성원 사이에 연대감이 그만큼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경쟁과 갈등의식이 더 치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결국 전쟁 중의 큰 충돌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이 경우에는 동족 마을 안에서의 ‘일가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굳이 말한다면 지파 내부에서의 일가주의만이 발동하였다고 할 것이다.

진도나 함평과는 다른 사례도 있다. 동족마을 내부의 분열이 거의 없이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인 영암 Y리의 경우이다. Y리에는 서로 사돈 관계인 최씨와 신씨, 두 성씨가 한 마을을 이루고 오랫동안 살아왔다. 이 마을의 신교육을 받은 신세대들은 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 사건으로 큰 곤욕을 치른 바 있었고, 이후 그들은 Y마을의 지도자로 성장하였다. 해방 이후 그들은 영암군 건준과 인민위원회에 참여했다. Y마을에는 잠시 우익청년단이 만들어졌지만 마을 주민들에 의해 사실상 축출되고 말았다. 한국전쟁이 일어나 인민군이 영암에 들어오자 Y마을의 지도자들은 영암군 인민위원장과 내무서장을 맡았다. Y마을은 전쟁기에 가장 중요한 좌파 마을이 된 것이다. 그러나 9·28 이후 경찰이 들어오자 지도자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전체가 마을 뒤의 금정면 산악지대로 피신하였다. 주민들의 피난은 1951년 봄까지 이어졌다. 결국 1951년 봄 마을 주민들은 내무서장을 지낸 인물의 주도 하에 대부분 산에서 내려와 자수하였다. 자수한 이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대부분 방면되었다. 하지만 산에 남은 이들의 소식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

고 말했다.²⁰⁾ Y리의 사례는 최씨와 신씨 사이, 그리고 각 문중 내부에 이렇다 할 분열이 없이 비교적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동계 등으로 다져진 문중과 마을의 결속력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마을 내부에서의 갈등은 당진군 합덕면의 한 마을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마을에는 오씨, 남씨, 김씨 등 세 성씨와 그 밖의 다른 성씨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남씨와 김씨는 가까웠지만 오씨는 다소 소외되어 있었다. 일제 말기 남씨 가운데에서 구장과 면 서기가 있어 이들이 징용과 징병의 모집책을 맡았다. 해방이 되자 마을 주민들은 구장을 ‘조리를 돌려’ 징치하였다. 이에 그는 아들과 함께 서울로 피신하였다가 미군과 함께 돌아왔다. 구장의 아들은 우익 청년단의 단장을 맡았고, 곧 그의 아버지에게 모욕을 준 이들을 징치하였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사정은 다시 바뀌어 이번에는 오씨들 세상이 되었다. 오씨들은 인민군에 협조하면서 옛 구장을 체포하였고, 그와 그의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이 처형되었다. 인민군이 물러간 뒤, 이번에는 반대편의 보복이 시작되었다. 오씨의 집안과 그들에 협력한 남씨 집안의 머슴 등 수십 명이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그리고 부역자 가족으로 지목된 이들 42호는 마을로부터 추방되었다.²¹⁾ 이 마을의 사례는 한 마을 내에서 집안간의 오랜 갈등이 해방 이후 좌우 갈등으로 확대되어 전쟁기에 치열한 보복 살육으로 나타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몇 개의 주요 성씨가 모여 살던 각성 마을 내에서는 주요 성씨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보복 학살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 박찬승, 2003, 「20세기 전반 동성마을 영보의 정치사회적 동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6-2.

21) 박찬승, 2007, 앞의 글.

다음에는 마을간의 갈등과 충돌을 살펴보자.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핀 바 있는 부여의 A마을과 B마을, 그리고 합덕의 A마을과 B마을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부여의 경우에는 양반마을과 평민마을이 충돌한 경우였고, 합덕의 경우는 지주 마을과 소작인 마을이 충돌한 경우였다. 그리고 부여의 경우가 동족마을 간의 충돌이었다고 한다면, 합덕의 경우에는 각성마을간의 충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족마을 간의 충돌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본다면 금산 부리면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금산군 부리면은 28개 마을이 대부분 동족마을인 특이한 면이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성씨는 길씨와 양씨였다. 이들은 모두 이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양반 성씨였다. 이들 두 성씨는 오랫동안 서로 경쟁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 가운데 1920, 30년대 길씨가 청년들이 사회주의 운동에 관계하였고, 이는 해방 이후의 좌익운동으로 이어졌다. 반면 양씨들은 해방 이후에 우익으로 기울어졌다(물론 소수지만 길씨 가운데 우익으로, 양씨 가운데 좌익으로 간 이도 있었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 커다란 충돌은 없었다. 인민군 치하에서 권력을 잡은 길씨들도 양씨들에게 큰 보복은 하지 않았다. 인민군이 후퇴한 뒤 양씨들도 길씨들에게 큰 보복은 하지 않았다. 두 집안은 사돈관계 등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11월 1일 우익들이 면민대회를 열어 면민의 단합을 과시한 소식이 인근의 빨치산들에게 전해져 그날 밤 빨치산들이 부리면을 습격하여 78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면민대회를 주도한 양씨의 사람들이 큰 희생을 치렀다. 우익쪽의 길씨들도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는 외지 사람들이 섞여 있던 빨치산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었다. 또 이 마을 출신들로는 머슴과 산지기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길씨와 양씨들이 특별한 피해를 입히지 않고 서로 감싸주었다는 사실이다. 두 마을, 두 집안은 사돈 등 인척관계로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²²⁾ 집안과 가문, 그리고 인척관계가

국가나 이념보다 더 중요하였다는 것을 이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몇 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친족, 마을 내부 혹은 외부와의 갈등과 투쟁 관계를 살펴보았다. 몇몇 사례를 근거로 어떤 결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설을 세워본다면, 한국전쟁기까지도 농촌 마을 주민들의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친족관계가 아니었나 여겨진다.²³⁾ 물론 그 기준이 어떤 경우에는 종종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계파 혹은 작은 지파의 문중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좁은 범위의 집안(堂內) 혹은 가족이 될 수도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친족 내부의 결속도에 달려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친족을 중시한 이와 같은 상황을 윤희숙은 이를 ‘일가주의’라 불렀다. 필자는 이를 ‘일가 중심주의’ 혹은 ‘친족 중심주의’ 정도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²⁴⁾ 이와 같은 친족중심주의는 물론 한국전쟁기에만 나타난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때까지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 온 가장 중요한 가치, 행동 기준이 ‘친족’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이농이 본격화되고 농촌 공동체가 점차 해체되기 시작할 때까지 이와 같은 친족중심주의는 한국사회를 움직여온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전쟁기에 큰 작용을 한 친족중심주의의 ‘친족’의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는 앞으로 더 많은 사례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22) 박찬승, 2008, 「한국전쟁기 동족마을 주민들의 좌우분화 - 금산군 부리면의 사례 -」 『지방사와 지방문화』 11-1.

23) 물론 앞서 살핀 신분이나 계급도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친족 관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24) ‘집안’ 혹은 ‘당내’는 대개 8촌 이내의 친척을 말하고, ‘일가’는 그보다 범위가 넓은 계파의 ‘문중’, 더 넓게는 ‘종중’까지도 가리키는 말이라고 여겨진다.

3) 종교와 이념간의 갈등

한국전쟁기 민간 사이에 커다란 충돌을 불러온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은 종교와 이념 간의 갈등이었다. 여기서 종교는 주로 기독교(개신교와 천주교)였고, 이념은 공산주의였다. 인민군과 토착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라는 관점, 그리고 기독교는 우익편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도들을 숙청의 대상으로 간주하였고, 이것이 충돌을 불러온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먼저 천주교와 공산주의자들 간의 충돌 사례를 살펴보자. 당진의 합덕면 H마을은 천주교 신자 마을이었다. 합덕 천주교회는 한말에서 일제시기에 걸쳐 서울의 천주교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합덕면 일대에 대규모 토지를 사들였다. 1950년 농지개혁 당시 천주교회의 소유 토지는 195정보에 달했다. 합덕성당은 성당 바로 앞의 H마을에 농민들을 모아 교회의 땅을 소작을 시키면서 집까지 제공하였다. 대신 농민들은 천주교 신자가 되어야 했다. 기왕의 천주교인 혹은 가난한 농민들이 이 마을에 모여들었고, 이 마을은 결국 천주교 신자마을이 되었다. 이 마을 농민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소작권, 그리고 각박하지 않은 소작료 수취 등으로 인해 자기 땅을 사들여 자소작농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 지역사회에서 합덕성당의 외국인 신부의 위세는 대단하여 일본인 경찰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H마을은 점차 보수화되어 갔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일부 농민들이 우익청년단에도 참여하였다. 한국전쟁이 일어나 합덕에 진주한 인민군은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신부와 신도회장, 복사 등을 붙들어갔다. H마을 주민들도 마을 안에 인민위원회 등 협조 단체를 만들어야만 했다. 하지만 인근의 Y마을 주민들은 H마을을 우익 마을로 간주하고 있었고, 결국 인민군 철수 시 H마을을 습격하여 주민 8명을 끌고 가 처형하였다. 9·

28 이후 경찰이 진주하자 이번에는 H마을에서 Y마을을 포위하고 주민들 대부분을 끌어다 정치하였고, 상당수가 경찰과 우익청년단에 넘겨져 다시는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였다.²⁵⁾ 두 마을의 충돌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Y마을은 해방 이후부터 좌익에서 활동해온 인물이 있었고, 이들의 영향으로 좌익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Y마을과 H마을은 이웃한 마을로서 오랜 세월 동안 합덕 방죽의 농수문제를 놓고 다툴 수밖에 없었고, Y마을에 있는 천주교회 토지 혹은 다른 부채지주의 토지를 H마을 사람들이 소작하는 문제를 놓고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²⁶⁾ 결국 H마을과 Y마을 간의 충돌은 천주교와 공산주의자들 간의 갈등, 즉 종교와 이념의 갈등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소작농민들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배경도 있었다고 여겨진다.

개신교 신도들의 피해는 천주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컸다. 한국전쟁기 군 단위에서 가장 많은 학살 피해자가 난 곳은 전남 영광군이었다. 영광군의 당시 인구는 약 16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전쟁 중에 2만 5천 내지 3만 5천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염산면에서는 약 3천 3백에서 5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염산면 내에는 염산교회와 야월교회가 있었다. 이들 교회의 교인들은 인민군 점령기에 이미 소수가 희생되었다. 그리고 9·28 이후 이듬해 1월까지 염산면은 인민군과 빨치산들의 점령 하에 있었는데, 두 교회 교인들은 1950년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학살당했다. 당시 민간인들을 학살한 것은 주로 각 면의 자위대와 각 리의 생산유격대였다고 한다. 생산유격대는 주로 하층민들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민군

25) 박찬승, 2007, 앞의 글.

26) H마을 사람들이 Y마을의 토지를 소작하는 경우는 많았으나, Y마을 사람들이 H마을의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농지개혁시 합덕면 분배농지부 참조).

과 빨치산들이 개신교 교인들을 학살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염산면의 사례를 연구한 윤정란은 기독교인들이 전쟁 전에 대표적인 친이승만 세력이었으며, 또 조직과 정보망을 갖추고 있어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²⁷⁾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학생들이 조사한 전남 무안군 청계면의 한 마을 사례는 이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 마을은 일찍부터 기독교가 들어와 교회가 들어섰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 전남 도지사를 지낸 이남규 목사를 배출한 유서깊은 기독교 마을이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교회 신자로서 공동체적 성격이 비교적 강한 마을이다. 하지만 이 마을에도 빈틈은 있었다. 머슴과 박수무당과 같은 계층이 바로 그러하였다. 이들은 마을 내에서 오랜 세월 동안 차별대우를 받아온 마을 안의 '타자'에 불과하였다. 전쟁이 나고 인민군이 들어오자 이들은 인민군에 적극 협력했다. 인민군 점령기 교회의 장로이자 우익청년단 관련자였던 인물과 다른 몇몇 사람들이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그리고 인민군 퇴각기에 이들은 처형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더 큰 사건이 발생했다. 9월 29일경 인민군이 마을에서 물러가자 마을 주민 몇몇이 성급하게 교회에 걸린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올리고서 만세를 불렀다. 그런데 아직 마을에 머물러 있던 좌익 가운데 누군가가 이를 발견하고 철수 중이던 지방 좌익들을 불러와 마을 주민들의 학살에 나섰다. 이를 동안 총살, 참살, 수장 등 갖가지 방법으로 학살당한 마을 주민들은 135명에 달했다. 그리고 경찰이 들어온 뒤 이번에는 마을 주민들이 청년단을 조직하여 청계면 일대에서 부역행위자들을 색출하여 학살하였다.²⁸⁾ 이 마을의 사례는 마을 주민들 가운데 소외되어 있던 이들이 전

27) 윤정란, 2005, 「한국전쟁기 기독교인 학살의 원인과 성격」『전쟁과 기억』, 한울아카데미, 106~109쪽.

28)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2003, 앞의 책.

쟁기에 다른 주민들에 대해 보복을 감행하였음을 말해준다. 물론 교인들의 성급함이 사태를 크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다.

전남 영암의 G마을에서 빚어진 개신교 교인들에 대한 학살도 주목해야 할 사례이다. G마을에서는 10월 7일 경찰이 영암읍을 수복하자 철수하던 좌익 세력들이 우익청년단원, 교회 교인 등 28명을 G마을 민간에 가두어놓고 불을 질러 집단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G마을에서는 18명의 신도들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2000년 G마을에 세워진 순교비를 보면 전쟁기에 영암에서 희생된 개신교인들은 영암읍교회 25인, 상월교회 26인, G교회 18인, 천해교회 7인, 삼호교회 2인, 서호교회와 매월교회 각 1인 등이었다고 한다.²⁹⁾ 아마도 이와 같은 양상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왜 개신교인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을까. 앞서 윤정란이 지적한대로 기독교인들은 해방 이후 친이승만 노선을 걸어왔고, 일부는 실제 우익단체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미 종교를 아편이라고 생각하는 인민군과 지방 좌익들은 기독교 세력 전체를 위험한 집단으로 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개신교인들이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보다 많은 사례 연구를 통해 더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마을지도자 · 국가권력과 전쟁

1) 마을지도자의 영향력

그동안의 사례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한국전쟁기 커다란 사건이 일

29) 정근식, 앞의 글, 166쪽.

어난 마을들에는 반드시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 마을이 좌익 마을이든, 우익 마을이든, 또 혹은 좌우익으로 나뉜 마을이든, 그 마을이 그러한 성향을 띠게 된 데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 인물은 대체로 지식인이거나, 문중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거나, 지주처럼 경제권을 장악한 인물들이었다.

(1) 좌파 쪽 지도자의 영향력

좌익 마을의 경우에는 대체로 사회주의계열의 지식인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들 지식인은 대체로 식민지시기부터 사회주의운동을 해온 경우와, 해방 이후 좌익 운동을 해온 경우로 나뉜다. 강진 해남 읍씨 마을의 경우, 일제시기부터 활동해오던 윤가현과 윤순달이라는 유명한 사회주의자들이 있었다. 윤가현은 1930년대 전남운동협의회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옥 후 경성콤그룹에 가담했다. 해방 이후 전남 도당 결성을 주도했으며, 도당 위원장을 지냈다. 윤순달은 윤가현의 조카로서 1935년 서울에서 권영태그룹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옥 후 경성콤그룹과 연결을 갖고 활동했다. 해방 후 조선공산당 광주시당 조직부장을 지냈고, 1947년 남조선노동당 조직부에서 활동하다가 1949년에는 조직부장이 되었다. 그해 경찰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다가 전쟁 때 석방되었다. 이처럼 윤가현과 윤순달은 일제시기부터 사회주의 운동 내부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이 마을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는 이들이 일제시거나 해방 이후에 이 마을에 직접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밝히지 못하였다. 다만 전쟁이 발발하고 인민군이 내려온 이후 이 마을에는 인민위원회, 민청, 여성동맹 등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는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였다. 인민군 치하에서 이 마을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그 사람들은 9·28 이후에 경찰이 진주한다고 하니까 산으로 도망갔고, 경찰이 이들을 잡아다 다 죽여 버렸다. 당시 이름만 올라 있던 사람들도 그리고 인근 면에서 선생 하던 사람도 우리 마을에 사니까 공산당이라고 해서 잡아 죽였다”는 증언이 주목된다. 이 연구는 증언을 빌려 이 마을에서 청년들 50여 명이 경찰에 의해 학살당했다고 전한다. 그 이유는 이 마을이 ‘공산당의 못자리’ 혹은 ‘공산부락’이라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윤가현, 윤순달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살았으면 대통령감인데 죽었다”고 아쉬워한다. 그러면서도 “만약 그 분이 안 계셨으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죽었을란가도 몰라. 윤가현 그 사람 때문에 그랬어”라고 원망을 하기도 한다.³⁰⁾ 이런 증언은 그들이 마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케 한다.

진도의 X마을의 경우에도 그러하였다. 이 마을에는 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에 참여한 곽재필·곽재술이 있었다. 곽재술은 해방 이후 진도군 인민위원회에도 참여하였다. 곽재필은 서울에서 중등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고, 곽재술은 보성전문학교 법과를 중퇴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마을 내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유식한 인물들이었다. 때문에 마을 내에서 중망이 있었고 그들을 따르는 청년들이 많았을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해방 이후 이 마을의 여러 청년들이 두 사람을 따라 인민위 쪽에서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1946년 들어 미군이 인민위원회를 사실상 해체시키고 좌파에 대한 탄압에 들어가자 두 사람은 진도를 떠나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진도읍을 중심으로 우익청년단이 들어섰고, X리에도 우익청년단에 가담한 인물들이 나왔다. 과거 곽재필·곽재술을 따르던 청년들도 보신을 위하여 우익청년단에

30) 염미경, 2003, 「전쟁과 지역권력구조의 변화」 『전쟁과 사람들』, 한울아카데미.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청년단 내부에서 항상 따돌림을 당하면서 곤욕을 치렀다고 한다.³¹⁾ 이처럼 이 마을 경우에도 두 지식인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암 Y리의 경우에도 1930년대 농민시위사건에 관련되어 옥고를 치르고 나온 인물들의 영향력이 컸다. 그들은 전기학교를 중퇴한 인물, 종손으로서 송정리 공업학교를 졸업한 인물, 광주농업학교를 졸업한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마을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서 당연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전쟁기에 영암군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맡게 됨으로써 이 마을은 좌익마을로 되어 버렸던 것이다.³²⁾

금산 부리면 길썬 동쪽마을의 경우에도 1930년대 전북공산주의자협의회 사건과 관련하여 옥고를 치른 인물과 일제하에서 10년간 면장을 지낸 그의 아버지, 그리고 전북조선공산당사건과 관련하여 옥고를 치르고 나온 인물 등 3인의 영향력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장을 지낸 이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당시 면사무소에 함께 근무했던 이들 가운데 그를 따라 해방 이후에 좌익 쪽으로 기운 인물이 많았다고 한다.³³⁾

이처럼 좌파 쪽 지식인들이 마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로 두 가지 배경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당시 농촌 마을 주민들의 교육 수준이 낮았던 상황에서 ‘배운 사람’들이 갖는 권위가 대단히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 증언자는 “원래 좌익운동 한다는 사람들은 내가 봐도 똑똑하더라고, 다 말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옳은가 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지”라고 말한다.³⁴⁾ 이 증언

31) 박찬승, 2000, 앞의 글.

32) 박찬승, 2003, 앞의 글.

33) 박찬승, 2008, 앞의 글.

은 당시 지식인들이 마을에서 갖고 있던 권위를 잘 설명해준다. 식민지 시대 취학률이 극히 낮았던 상황에서 농촌 주민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³⁴⁾ 따라서 문맹률도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보통학교 혹은 전문학교를 나온 이들은 지식인으로서 마을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질 수 있었다.

또 다른 하나의 배경은 당시의 농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고, 지주와 소작인 혹은 머슴 간의 봉건적인 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한다. “농민들 입장에서야 좌익분자들 빨갱이 말이 맞지. ‘다 같이 공평하게 먹고 살자’ 그러니. 없는 사람들이 왜놈들 밑에서, 있는 사람들 밑에서 학대 받고. 쌀 한 말 갖다 먹으면 일을 엿새씩 해주고. 이런 세상을 겪은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가 옳다고 했지.” 농촌의 불평등한 현실은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지식인들의 정당성을 확인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인민군 점령기에 이들은 북쪽 국가권력의 지원을 등에 업고 현실적인 힘까지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주의적 지식인들이 특히 동족마을의 경우, 친족의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고, 그들에 비해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2) 우파 쪽 지도자의 영향력

마을의 우파 쪽 지도자로서는 지식인보다는 일제하 혹은 해방 이후

34) 이용기, 2001, 「마을에서의 한국전쟁 경험과 그 기억」 『역사문제연구』 6, 52쪽.

35) 1930년대 초반까지 남자의 보통학교 취학률도 30%를 넘지 못하였다. 남자 취학률이 50%를 넘어선 것은 1939년의 일이었다(오성철, 2000,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133쪽).

면장을 지낸 인물, 경찰에 들어가거나 우익 청년단에서 활동한 인물, 그리고 재지주나 마름(혹은 농장관리인) 등을 들 수 있다.

일제시거나 해방 이후 면장을 지낸 이들의 대부분은 우익쪽 입장에 섰다(물론 예외는 있다). 인민군 점령기, 혹은 인민군 퇴각기에 면장의 경력을 갖고 있던 이들의 상당수가 처형되었다. 친일과 혹은 친이승만 파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면장 출신과 함께 우익 지도자로 가장 부각된 인물들은 역시 우익청년단 단장과 관련자이다. 우익청년단은 1946년 하반기부터 농촌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이 되었고, 이는 전쟁 발발 전까지 이어졌다. 우익청년단 주요 간부들은 전쟁이 일어나자 대부분 피난을 떠났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인민군 치하에서 큰 곤욕을 치르거나 학살되었다. 인민군이 철수한 뒤 피신했다가 마을로 돌아온 우익청년단 간부와 단원들은 마을의 중심세력으로 복귀하였다. 이들은 부역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들만큼 힘 있는 이들도 없었다. 전쟁 전, 그리고 전쟁기 수복 후에 이들은 남쪽의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주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마을의 지도자로 부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을의 또 다른 우익 지도자로는 지주계층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직접 우익단체에 참여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계층적 특성상 우익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이들 지주계층이 마을 내 소작인들에게 갖는 영향력은 상당할 수밖에 없었다. 재지주들 가운데에는 소작인들에게 소작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집까지 빌려주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경우 소작인들은 협호, 호지집이라고 불리었는데, 오늘날 학계에서는 이들을 ‘종속적 소작인’이라 부른다. 이러한 소작인들은 해방 직후에도 상당수 있었고, 이들은 마을 내에서 지주의 가장 강력한 권력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쟁기에 이들 가운데 지주에 반기

를 들고 나온 이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지주를 보호하려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지주층은 국가권력보다는 자신의 경제적인 힘을 기반으로 마을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합덕면 S리의 박씨가 마을 내 소작인들의 도움을 얻어 인근 마을 좌익 주민들의 습격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사례가 아닐까 여겨진다.³⁶⁾

하지만 지주의 경우, 농지개혁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소작인들에게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힘은 어디에 있었는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2) 국가권력의 마을 개입

한국의 농촌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다. 대부분의 마을이 최소한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특히 동족마을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체적 성격은 그만큼 강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마을공동체도 완전히 고립된 우주는 아니었다. 이웃한 마을들과의 관계가 있었고, 군현이라고 하는 국가기관과의 관계도 있었다. 각 마을 간에는 신분에 따라 일정한 위계질서가 있었고, 그러한 위계질서에 따라 마을 간의 관계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군현의 기관과는 주로 조세수취를 매개로 관계가 설정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국가권력의 마을에 대한 개입은 조세수취의 공동납을 강제하는 그러한 수준이었다. 마을 내부의 문제까지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각 마을은 그 나름의 성격에 따라 각각 질서와 규율을 갖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주로 신분제와 지주제, 그리고 친족관계 등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36) 박찬승, 2007, 앞의 글, 163쪽.

하지만 이러한 마을공동체의 전통적인 질서와 규율은 20세기 들어 신분제의 이완과 함께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특히 1920, 30년대 들어 신교육이 농촌사회까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신분의식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마을 내의 위계질서도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20, 30년대에 신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서서히 마을의 전통적인 지도자들, 즉 종손, 한학자, 지주 등을 대신하여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10년대 면사무소의 설치와 면장, 면서기의 등장도 농촌 사회에서의 마을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총독부는 마을에 이장을 두어 각 마을을 면사무소 밑의 행정단위로 종속시켜 갔다. 그리고 1930년대 들어서는 농촌증건 인물 양성 등을 통해 각 마을의 전통적인 리더를 총독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리더들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비록 이와 같은 사업은 충분히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농촌 마을의 기존 질서를 흔들어놓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총독부는 일제 말기 전시 총동원체제 하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위해 국민정신총동원연맹 등의 말단 조직인 부락연맹과 애국반을 마을에 만들었다. 이는 마을을 하나의 행정단위로서 국가권력에 확실히 포섭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가권력의 의지는 이제 마을 단위에서까지 강력히 관철될 수 있었다.³⁷⁾

1945년 해방이 찾아왔지만 마을공동체의 질서를 전처럼 다시 복원하는 일은 어렵게 되었다. 특히 일제말기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국내외로의 이동은 전통적인 신분의식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사람들은 이제 마을 내에서의 신분에 기초한 위계질서에 더 이상 복종하지 않게 되었으며, 마을 내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었다. 여기에 토지개혁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지주층의 힘도 크게 약해졌다. 그런 가운데 중앙정치에서의 좌우의

37) 김영희, 2003, 『일제시대 농촌통제정책 연구』, 경인문화사, 533쪽.

분화는 마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마을 내부, 마을 간에 좌익과 우익으로의 분화가 서서히 이루어졌다. 물론 이는 주로 마을의 지식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그들이 지닌 영향력으로 인해 마을 구성원들도 서서히 분화되어 갔다. 좌우의 분화는 현실 속에서는 좌익단체와 우익단체의 조직 혹은 참여로 나타났다. 특히 좌우익 청년단체의 등장은 젊은 층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앙정치에서의 좌우 대립은 마을 내부에서의 좌우대립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1948년 남북에는 각각 좌우정권이 들어섰다. 농촌 마을에서의 좌익세력은 크게 약화되고 우익세력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의 마을들은 다시 요동을 치게 되었다. 좌익 세력이 다시 부활하고, 우익세력은 큰 희생과 곤욕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민군은 북에서 내려온 정치보위부를 중심으로 점령지를 통치했다. 그들은 면 단위에 내무서를 두고, 각 마을에는 인민위원회, 자위대, 농민위원회, 생산유격대 등을 만들게 했다. 또 민청, 부녀동맹 등도 만들게 했다. 이에선 대부분 하층민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한 증언자는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들 포섭하는 전술이 대개 무식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섭하더라고.” 또 다른 증언자는 이렇게 말한다. “어려운 사람을 시켰지. 그래야 말을 잘 들으니. (중략) 공작대라고 이북에서 파견되어 나온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는거야. 그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서 여기 사람을 써먹는 거지.”³⁸⁾ 두 사람의 증언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고 보인다.

북한 정권은 남한 지역의 통치에서 마을 단위까지의 권력의 침투를 대단히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한 정권도 전쟁 이전에 이장, 국민회, 청년단 등을 통해 마을 단위까지 권력을 침투시키고자 하였지만,

38) 이용기, 앞의 글, 33쪽.

북한 정권의 경우에는 더욱 철저히 마을을 장악하려 하였다. 북한 정권은 각 마을의 기존 질서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들은 특히 토지개혁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경제 기반을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려 하였다. 인민재판은 마을의 기존 질서를 철저히 해체시키려는 또 하나의 장치였다. 9.28 이후 인민군은 폐퇴하면서 각 마을의 주요 인물들을 처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마을의 하층민들을 동원하였다.³⁹⁾

인민군이 폐퇴한 이후 들어온 국군과 경찰 또한 마을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들은 각 마을에서 인민군에 협조한 세력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처단하고자 하였다. 각 마을에는 역시 치안대 혹은 청년단이 조직되어 부역자들을 색출하여 경찰에 넘기거나 경찰의 묵인 하에 직접 처단하였다. 이로써 각 마을에서는 좌든 우든 지도적인 역할을 해오던 이들이 대부분 희생되었다. 다만 피신했거나 요행히 살아남은 우익 인물들만이 이후 마을을 지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이제 더 이상 마을 주민들의 존경심에 기초한 지도자는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국가권력에 의지하여 마을을 지도하는 위치에 섰을 뿐이었다. 물론 동족마을이나 전쟁기에 서로를 감싸 희생이 크지 않았던 마을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소 달랐다. 이들 마을의 경우에는 과거의 공동체적 성격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었다. 마을의 지도자도 과거의 권위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쟁이 할퀴고 간 상처는 매우 컸다. 그리고 전후 국가권력의 마을에 대한 개입 강도는 훨씬 더 강해졌다. 면사무소의 이장을 통한 개입, 경찰지서의 각 마을에 대한 감시의 강도는 훨씬 강화되었다.

이상에서 정리한 것처럼 한국전쟁은 남북 권력이 각 마을 공동체에

39) 김수현, 2006, 「한국전쟁기 북한의 점령지 지배정책 - 부여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한양대 석사논문.

깊숙이 개입해 들어와 공동체를 사실상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남북의 국가권력은 왜 이와 같이 마을 공동체에 깊숙이 개입하였던 것일까. 그것은 다음의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남북의 국가권력은 정부 수립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 각각 자신에 대한 충성 서약을 최말단의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요구함으로써 국가의 권력 기반을 굳히려 하였다. 1948년 남북에는 각각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그리 높은 상황은 아니었다. 그것은 양쪽 모두 분단정부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고, 남북 모두 국민들 사이에 좌우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 국가 권력은 전쟁 상황을 이용하여 어느 한쪽을 분명히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충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남북의 국가권력이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여 직접 학살에 나서도록 한 것은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다른 쪽 편을 학살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을 어느 한 쪽에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인민군이 인민재판과 철수시의 학살에 주민들을 동원한 것은 동원된 주민들의 북쪽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곧 남쪽 정권에 다시 충성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남쪽 정권이 경찰 수복 후에 역시 청년단원 등을 동원하여 부역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처형하였던 것도 역시 남쪽 정권에 대한 충성을 확실히 해두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아울러 학살이라는 방법을 동원한 것은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감히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였다. 즉 공포감과 무조건적인 복종심을 유발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⁴⁰⁾

둘째, 남북 정권은 전쟁을 치르면서 최대한의 인적, 물적 자원의 동

40) 김동춘, 앞의 책, 259쪽.

원이 필요했다.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을 위해서는 행정의 말단인 마을과 그 주민들을 확실히 장악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남쪽이나 북쪽 모두 전쟁의 수행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동원이 필요했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에 대한 확실한 파악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셋째, 남북 정권은 전쟁 과정, 그리고 전쟁 이후를 대비하여 치안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치안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역시 행정의 말단인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남북의 국가 권력 모두 마을 내부에 국가권력을 대신하여 마을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사람과 조직을 두고자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권력이 마을에 것처럼 깊숙이 개입해오지 않았다면 과연 마을 안팎에서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전쟁 이전에 이미 오래 전부터 마을 안팎에는 여러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갈등이 인명 살상으로까지 연결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호남 지역에서 여순 사건 이후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것은 국가권력 즉 군이나 경찰에 의한 체포와 처형이거나, 아니면 작전 중에 빚어진 일이었다. 민간인이 직접 나서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재판관을 하고 직접 처형한 것은 전쟁 중에 시작된 것이었다. 물론 그 발단은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이었다. 그리고 인민군 치하에서 인민재판에 의한 처형이 시작되면서 민간인의 학살 개입이 본격화되었다.⁴¹⁾ 인민군 철수

41) 인민군은 점령지역에서 이른바 '정치범' 들을 체포하였는데, 정치범은 참여기관별(남한 정부, 경찰, 헌병, 국방군)과 참여행위별(밀정, 테러, 정당, 사회단체, 간첩, 선전, 반동결사)로 나뉘었다. 부여군의 경우, 정치범은 총 117명이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반동사회단체'에 참여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54명). 다음이 경찰, 밀정, 국방군, 테러, 선전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5명은 즉결처분하고, 나머지는 도로 이송하였다고 한다. 또 '악질민족

시에 빚어진 대량 학살은 북쪽의 국가권력이 지시한 것으로 여기에는 민간인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그리고 다시 국군과 경찰이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남쪽 국가권력의 묵인 하에 민간인들이 개입된 학살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민간인들의 대량 학살에는 구체적인 지시는 아니면 묵인이든 국가권력의 개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국가권력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대규모 민간인 학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간인들끼리 죽고 죽이는 학살은 사실상 국가권력의 조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북의 국가권력은 자신의 권력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민간인 학살을 서로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하지만 이는 아직 추정에 필요하다. 구체적인 학살과정, 특히 수복 이후의 학살과정에서 국가권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하였는지에 대한 정리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4. 전쟁 이후의 마을

인민군이 철수한 뒤, 마을은 거대한 후폭풍을 만나게 된다. 우선 인민군에 협조했던 이른바 부역자들에 대한 색출과 처벌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은 마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마을 주민들이 대거 희생된 경우이다. 진도의 X리처럼 인민군 치하에서 1백 명이 넘는 희생자가 났고, 인민군에 협조한 주민들이 대거 입산한 경우, 부역자 가족들에 대한 색출과 처형, 입산자에 대한 추적이 끈질기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⁴²⁾ 영암 G리의 경우에는 경찰이 들어와 주민들

반역자'에 대한 처벌은 현지공판, 즉 인민재판을 통해 처결하도록 하겠다고 한다(김수현, 앞의 글, 34~36쪽 참조).

을 모두 나오라고 한 뒤에 한꺼번에 78명을 사살했다. 하지만 경찰은 월출산의 빨치산이 두려워 G리를 바로 장악하지 못하였다. 결국 경찰과 마을 대표 간에 협상이 이루어져 마을 주민 총자수와 조사 후 방면이라는 형태로 양측은 타협을 하게 된다.⁴³⁾ 영암 Y리의 경우, 인민군이 철수하면서 마을 주민 전체가 마을 뒤 산악지대인 금정면으로 피신하였다가 반년이 다 된 뒤에야 비로소 마을 주민들이 한꺼번에 산에서 내려와 자수하게 된다. 역시 마을 주민 총자수의 형태로 경찰과 마을 주민이 타협을 한 것이다. 하지만 Y리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은 1백 명이 넘었다.⁴⁴⁾

전쟁을 겪으면서 이와 같은 마을들은 불과 반년 여 만에 그야말로 쪽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을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졌고, 지역 사회에서 마을의 위상은 철저하게 추락하였다. 영암의 G리나 Y리는 과거 영암의 대표적인 반촌으로서 영암을 이끌고 온 마을들이었다. 하지만 전쟁을 거치면서 두 마을은 읍내 향리가의 후손들이 중심이 된 우익 세력들과 대결하였고, 결과는 읍내 세력들의 승리였다. 이후 두 마을은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영암의 모스크바’로 낙인찍혀 오랜 세월 동안 숨죽이고 살 수밖에 없었다. Y리의 경우, 1950년대 도의원 선거에서 단 한 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⁴⁵⁾ 이는 G리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좌우로 갈리어 충돌한 경우에는 후유증이 심각하였다. 합덕의 한 마을에서는 인민군 치하에서 이에 적극 협력한 오씨들과 마을 머슴 등이 모두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마을에서 추방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오씨와 대립관계에 있다가 인민군 치

42) 박찬승, 2000, 앞의 글.

43) 정근식, 2003, 앞의 글.

44) 박찬승, 2003, 앞의 글.

45) 같은 글, 169쪽.

하에서 큰 희생을 치른 남씨가 사람들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어 주요 부역자 가족과 경미한 부역자들을 마을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 추방은 그 날로 즉시 결행되어 부역자 가족들은 옷가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마을에서 추방되었다고 한다.⁴⁶⁾ 이와 같은 부역자 가족 추방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진도의 X리에서도 역시 주요 부역자 가족은 마을에서 추방되었다. 서천군 한산면의 한 마을에서도 역시 부역자 가족들을 모두 추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추방된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마을에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한 부역자의 아들이 선산에 성묘라도 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허용하였다고 한다.⁴⁷⁾ 진도 X리의 경우에도 한 부역자가 나이가 들어 고향에 돌아가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역시 허락하지 않아 인근 마을에 들어와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마을에 남아 살 수 있었던 이들의 경우에도 결코 편안하지 못했다. 그들은 마을 내에서 '주홍글씨'를 달고 살 수밖에 없었다. 재산은 물론 땅을 강제로 빼앗긴 경우도 많았다. 또 남편이 입산하거나 죽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우익청년단들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첩이 되어 버린 경우도 있었다.

마을 간에 충돌이 있었던 경우에도 역시 후유증이 심각하였다. 합덕의 Y리 사람들은 인민군 치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마을이었는데, 인민군 철수 직전에 인근 두 마을을 습격하였다. 한 마을은 지주가 살던 마을이었고, 다른 한 마을은 천주교 마을이면서 동시에 우익 청년단원이 있던 마을이었다. 지주가 살던 마을에 대한 습격은 지주가 총을 쏘는 바람에 실패하였지만, 천주교 마을에 대한 습격은 결국 그 마을 주민 10여명을 학살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경찰이 들어온 뒤 천주교 마

46) 박찬승, 2007, 앞의 글, 170쪽.

47) 한산면의 한 마을의 촌로의 증언 (2006. 8).

을 사람들은 이번에는 역으로 Y마을을 포위하고 성인 남자들을 모두 잡아 창고에 가두고 집단 구타를 했으며 결국 경찰과 우익 청년단에 넘겼다. 이후 상당수의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오지 못했다. 두 마을은 아직도 서먹서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행히 Y마을 사람들이 상당수 천주교 신자가 되어 어느 정도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반촌과 민촌의 대결이 있었던 부여의 두 마을의 경우도 역시 후유증이 심각했다. 인민군 치하에서 민촌 마을 사람들이 반촌 마을 지도자 2명을 인민재판에 넘겨 처형했다. 경찰이 들어오자 이번에는 반촌 마을 사람들이 민촌을 포위하여 성인 남자들을 모두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결국 17명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6명이 처형되거나 옥사했다. 구속되지 않고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도 이웃 반촌 사람들에게 곤욕을 당하였다. 반촌 사람들은 민촌에 와서 가재도구 가운데 쓸 만한 것은 모두 가져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의 장로격이었던 인물은 반촌 사람들에 의해 금강변에 끌려가 머리만 내놓고 과묵히는 곤욕을 치렀다. 이는 민촌 사람들에 의한 인민재판 때 반촌 지도자가 그렇게 해서 숨을 거둔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두 마을 사람들은 전쟁 이후에도 관계가 험악하여 서로 왕래가 거의 없었다. 두 마을은 전쟁 이후 경쟁의식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다. 정월 대보름날에는 거의 전쟁이나 다름없는 쥐불싸움을 했으며, 아이들의 학교 운동회에서도 두 마을 사이의 경쟁은 치열했다. 이와 같은 대립과 불화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하지만 금강변에 독을 쌓아 홍수를 막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두 마을은 화해를 하고, 친목 단체도 만들었다. 금강 독을 쌓은 후 두 마을은 엄청난 농지를 새로 얻게 되어 경제형편이 모두 좋아졌다. 이에 따라 대립관계도 점점 해소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두 마을 사이에는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⁴⁸⁾

48) 박찬승, 2006, 앞의 글.

이상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쟁 이후의 마을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마을의 공동체적 성격은 어느 정도 파괴되고, 또 어느 정도 복원되었을까, 마을 주민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누가 새로운 마을 지도자가 되었을까, 농지개혁은 마을 안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마을에서 추방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살게 되었을까, 마을 간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을까 등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이 남아 있다.

5. 에필로그 - 연구 방법론의 문제

이상에서 한국전쟁기 마을에서 빚어진 여러 사례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해보았다. 이제 끝으로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한국전쟁과 마을에 관한 문자로 된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연구에서 문헌자료들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보조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구술 증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쟁기에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은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마을 주민들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한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짐작할 수 있다.

첫째,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에 협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금기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자칫 북쪽에 협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가는 그 후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연좌제가 엄연히 살아 있었고, 이제 제도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연좌제의 그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에 민감한 것은 당

연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전쟁기의 상황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피해자이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주민들의 말대로 남북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전쟁, 즉 ‘툽질전쟁’이 되었기 때문에,⁴⁹⁾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다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 또는 거꾸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다시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는 이들은 당시의 상황을 떼떼하게 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전쟁이 있은 지 60년이 다 된 오늘에 와서 과거의 상처를 다시 헤집기 싫어하는 이들이 많다. 가족과 친척들을 잃은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 자꾸만 말하는 것은 아픈 상처를 다시 들쭉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그때의 비극을 다시 떠올려 말하기 싫어한다. 또 전쟁 중에 극단적 상황에 내몰려 ‘광기’ 어린 행동들을 하거나 부득이한 행동들을 한 경우들이 있었다. 그러한 행위에 참여한 이들은 이를 부끄러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가끔씩 이를 잊고 싶어 한다. 따라서 그들 또한 전쟁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일부 사람들이 전쟁 중에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씩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우익 쪽에 섰던 사람들이다. 우익 쪽에 섰던 사람들조차도 전쟁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으려 하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이제는 당사자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자손들도 마을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좌익 쪽에 섰던 사람들은 아직도 입을 떼려 하지 않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분위기가 다소 호전되기는 하였지만, 이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필자는 한 노인에게 전쟁 때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했다가 집에서 쫓겨난 일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들의 구술 증언 채록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49) 많은 증언자들이 한국전쟁은 ‘툽질전쟁’이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례연구에서 잘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례 연구는 주민들의 단편적인 증언들을 모아 조각 맞추기 식으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단편적인 증언이 얼마나 당시의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 단편적인 증언들조차 상당히 의도된 증언일 수 있다는 데에 더 문제가 있다. 일부 증언자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절대 말하지 않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함으로써 사실을 호도하기도 한다. 필자가 인터뷰한 어느 마을은 전쟁 중에 거의 희생자가 거의 없었다고 말하다가 1952년 공보부에서 만든 희생자 명부에 1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자 비로소 사실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증언자들의 경험도 사실은 대단히 단편적이라는 것이다. 주요 당사자들은 이미 당시에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당시 나이가 3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세상을 떠났다. 당시 나이가 20세였던 사람도 이제는 80세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20세였던 사람이 마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 들은 단편적인 것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당시 마을에서 벌어진 상황을 어느 정도라도 구성하려 한다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구술 증언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용기가 지적하듯이 구술증언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경험 기억 구술'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⁵⁰⁾ 그 과정에서 구술자의 기억은 부정확할 수도 있고, 또 왜곡된 기억일 수도 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시간이 가면서 사실은 선택적으로만 뇌 속에 남는다. 그리고 그 선택과정에는 기억하는 사람의 의도가 일정하게 관철된다고 한다. 즉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

50) 이용기, 앞의 글, 51쪽.

서 구술 증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왜곡된 기억, 선택된 기억 가운데 일부를 선택적으로 풀어내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또 증언자는 여기에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을 덧붙여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구술 증언, 구술사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왜 그렇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선택적으로 증언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지 그 배경에 더 관심을 가진다. 역사학자는 그들의 증언 가운데 담겨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인류학자나 사회학자 처럼 기억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구술 증언 외에도 한국전쟁과 마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기록 자료들을 보완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 신문자료, 농지개혁 자료, 족보, 전쟁기 희생자 명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자료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재판기록이다. 전쟁기에 마을 내에서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이들 가운데에는 재판에 회부된 경우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재판기록은 당사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학자들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들 재판기록도 사실을 충실히 전달해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단은 검토해야 할 자료이며, 어떤 면에서는 단편적인 구술증언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일 수도 있다. 학자들의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융통성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연구자들도 최대한 관련자들의 신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전쟁 연구는 마을 차원까지 내려왔다. 하지만 구술증언에 주로 의지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앞으로 이 연구가 얼마나 더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80세 이상의 고령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라도 더 많은

사례연구, 한 단계 더 진전된 연구가 학계에 보고되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한국전쟁은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한국전쟁 연구는 당시의 한국사회,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 식민지시대, 조선왕조시대의 사회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창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마을에서의 한국전쟁 연구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 김경학, 2005, 「한국전쟁 당시의 집단학살 및 좌우익에 대한 기억들」 『전쟁과 기억』, 한울아카데미.
- 김동춘, 2000, 『전쟁과 사회』, 돌베개.
- 김수현, 2006, 「한국전쟁기 북한의 점령지 지배정책 - 부여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한양대 석사논문.
- 김영택, 2001, 『함평양민학살사건』, 역사연구원.
- 박정석, 2003, 「전쟁과 ‘빨갱이’에 대한 집합기억」 『전쟁과 사람들』, 한울아카데미.
- 박정석, 2005, 「전쟁과 폭력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기억」 『전쟁과 기억』, 한울아카데미.
- 박정석, 2005, 「전쟁의 공간에서 ‘주변인’으로서의 전쟁체험」 『전쟁과 기억』, 한울아카데미.
- 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역사학전공, 2003, 『한국전쟁기 전남지방 민간인 희생에 관한 재조명』.
- 박찬승, 2000, 「한국전쟁과 진도 동족마을 세등리의 비극」 『역사와 현실』 38.
- 박찬승, 2003, 「20세기 전반 동성마을 영보의 정치사회적 동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6-2.
- 박찬승, 2006, 「종족마을 간의 신분갈등과 한국전쟁 : 부여군 두 마을의 사례」 『사회와 역사』 69.
- 박찬승, 2007, 「한국전쟁기 합덕면 마을 주민간의 갈등」 『사회와 역사』 74.
- 박찬승, 2008, 「한국전쟁기 동족마을 주민들의 좌우분화 - 금산군 부리면의 사례 -」 『지방사와 지방문화』 11-1.

- 양라윤, 2008, 「한국전쟁기 함평지역에서의 학살사건」『전쟁과 재현』, 한울아카데미.
- 염미경, 2001, 「양반가문의 한국전쟁 경험」『호남문화연구』 29,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 염미경, 2003, 「전쟁과 지역권력구조의 변화」『전쟁과 사람들』, 한울아카데미.
- 염미경, 2005, 「여성의 전쟁기억과 생활세계」『전쟁과 기억』, 한울아카데미.
- 윤정란, 2005, 「한국전쟁기 기독교인 학살의 원인과 성격」『전쟁과 기억』, 한울아카데미.
- 윤택림, 2003,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 한 빨갱이 마을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 윤희숙, 2003, 「전쟁과 농촌사회구조의 변화」『전쟁과 사람들』, 한울아카데미.
- 이용기, 2001, 「마을에서의 한국전쟁 경험과 기억」『역사문제연구』 6.
- 정근식, 2002, 「한국전쟁 경험과 공동체적 기억」『지방사와 지방문화』 5-2.
- 정근식, 2004, 「지역정체성, 신분투쟁, 그리고 전쟁기억」『지방사와 지방문화』 7-1.
- 정근식외, 2003, 『구립연구 - 마을공동체의 구조와 변동 -』, 경인문화사.
- 최정기, 2008, 「한국전쟁 전후 연파리의 사회적 갈등과 제노사이드 - 지리산 아래 면 소재지에서의 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전쟁과 재현』, 한울아카데미.
- 최호림, 2008, 「한 마을에서의 전쟁폭력의 경험과 기억」『전쟁과 재현』, 한울아카데미.

(Abstract)

The Korean War and People in the Farming Villages

Park, Chan Seung (Hanyang University)

The Korean War can be characterized as a civil war. The civilians in the area occupied by the North Korean Army were split into the left and right wing and killed each other during the occupation and after the retreat of North Korean Army. The present study explored the possible causes of this tragedy of massacres occurred in the farming villages.

There seemed to be three reasons why there were so many people killed in the farming villages during the Korean War. First, there was still a strong sense of class distinction in the rural communities although the caste system was abolished at the end of 19th century. Conflicts between the landowners and tenants, between the upper class people and lower class people exploded during the war and were led to the tragic killings. Second, scores of people have died because of a feud between neighboring villages or between the relatives and families in a village. It was found that there has been a strong sense of rivalry among these villages and/or families and the war gave a chance to revenge for those who thought to have suffered unfair treatment. Third, there was a contention between Christians and communists that was also led to massacres. North Korean Army believed that Christians were dangerous because many Christians took an active part in right-wing organizations, and so

attacked them.

There were other decisive factors in this war as well. Influentials in the villages, such as intellectuals or highly considered landowners, and governm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meddled in the conflict and enticed the people into a collision for their own interests or beliefs. Since neither South nor North Korean government had a strong power base, they contrived to strengthen the power base by pushing people to stand on one side, either right or left. As a result, scores of ordinary people in the farming villages were sacrificed.

Key Words : Korean War, massacre, village, left wing, right wing,
Christians, intellectuals, landowners

